

# 월 544만원 벌어야 한국의 보통가구



▲ 출근 시간 서울 구로구 한 버스정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보통가구는 한 달에 평균 544만 원을 벌며, 절반(276만 원)을 소비하고, 10%는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산은 6억 원대로 그 중 80%를 부동산이 차지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서 지난해 경제활동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544만 원으로, 전년보다 4.4%(23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1085만 원으로 하위 20% 가구(195만 원)보다 5.6배 많았다.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6.6%로 가장 높아 소득 격차(전년 5.7배)는 다소 줄었다. 중소득층(40~60% 구간)의 평균 소득은 475만 원으로 전년보다 3.7% 늘었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4.4% 늘어나는 동안 소비 지출은 5.7% 증가했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 내 지출 비중은 소비가 50.7%(276만 원)를 차지했다. 이어 예비자금 20.1%(109만 원), 저축·투자 19.3%(105만 원), 부채상환 9.9%(54만 원) 순이다.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 294만 원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섰다.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9.7%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과 비교해 소폭(0.5%p) 하락했다. 상위 20%의 자산 규모는 11억 6699만 원으로 하위 20%보다 7.2배 많았지만 격차는 2년 연속 줄었다.

# 외국인 노동자 59% '임금 낮거나 일 위험해서' 이직

지난해 이직을 희망한 한국 체류 외국인 임금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을 이직 사유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SBS'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 체류 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발표했다.

지난해 외국인 임금노동자 중 이직 희망 비율은 12.3%였다.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많았고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19.4%)가 뒤를 이었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임금이 낮아서' 이직을 원하는 노동자 비중은 영주(44.8%)에서 가장 높았고 유학생(44.4%), 전문인력(4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



▲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 사진=연합뉴스

자 비중은 방문취업(36.0%), 결혼 이민(23.3%), 재외동포(23.0%) 순으로 높았습니다. '방문취업'은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구소련·중국 등에 사는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38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50시간 비중이 56.5%로 가장 많았다. 50~60시간(18.1%), 60시간 이상(10.5%) 등 50시간 이상 일한다는 노동자는 28.6%를 차지했다. 외국인 임금노동자의 50.6%는 월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전문 취업은 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기타 아시아(86.9%) 비중이 높았다. 방문취업은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중국(84.5%)이 가장 많았고 유학생은 베트남(34.6%), 중국(29.9%) 순이었다.

# 출산 포기 이유는 '경력단절 우려'



▲ 서울 시내의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실에 빈자리가 여럿 보인다. 사진=뉴스1

한국의 합계출산율 감소 폭 절반가량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 때문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16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19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19년 0.92명으로 감소했는데 여성들의 경력단절 우려가 없었다면 1.06명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봤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가임기 여성 연령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력단절로 인한 출산 회피의 기여율이 39.6%에서 46.2%까지로 나타났다"며 "하락 폭의 40% 이상, 46%는 경력단절 때문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민 KDI 연구위원도 "자녀를 가졌을 때 경력단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경력을 유지하고 싶은 여성 근로자들이 자녀를 갖지 않으면 출산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테메쿨라 한인 치과 오픈!

## TOWN CENTER DENTAL

·타운 센터 덴탈· 무료상담!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진료

임플란트 / 신경치료 / 크라운 / 보철치료 / 틀니

ALL PPO, LIBERTY, ALL MEDI-CAL, DENTI-CAL, IEHP, MOLINA

T.951.693.9595

29700 Rancho California Rd. STE G5, Temecula, CA 92591  
Mon - Wed, Fri. 9:00AM - 6:00PM

GRAND OPENING

임플란트 \$1,200 부터